



##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재고

김영혜(연세대 미래캠퍼스)

### 1. 들어가는 말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 최근에는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된다. 구약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융복합적인 방법론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주로 문학, 철학, 심리학 등과 같은 학문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구약학 연구에 접목시키는 정도였다. 그러나 타학문과의 이러한 융복합은 구약학 분야에서도 주로 신문학 비평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적 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뿐, 문서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과 같은 역사비평적 방법론에 속하는 구약학 영역에서는 타학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출애굽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출애굽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사비평적 연구는 주로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하여 관련 본문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출애굽 전승의 일부로 구약학에서 대체적으로

[www.kci.go.kr](http://www.kci.go.kr)

설화로 간주되고 있는 열 가지 재앙의 경우는 그보다 더하여 근래에 역사비평적 분석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다룬 구약학 논문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가 타학문, 특히 지질학 및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할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연구로 꼽히는 것은 지질학자인 호르트(Greta Hort)에 의해 1957년과 1958년에 걸쳐 두 차례 발표된 논문으로,<sup>1</sup> 호르트의 논점 중에는 역사비평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열 가지 재앙, 특히 첫째 재앙을 지질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공헌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호르트 이후,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이루어진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분석 중 구약학적으로 의미미한 논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에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열 가지 재앙 중 첫째 재앙에 해당하는 나일강의 경우, 출애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고 간주되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기원전 16세기 - 기원전 11세기) 동안 나일강에 발생한 지질학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나일 삼각주 중 고센 지역의 나일강 지류가 바뀐 것인데, 이때 발생한 지류의 변화로 인하여 람세스 2세 이후 이집트의 수도였던 나일강 유역의 라암셋은 점차 폐허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집트의 수도는 기원전 11세기에 라암셋에서 타니스로 옮겨졌다.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

1 Greta Hort,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Greta Hort, "The Plagues of Egypt II", ZAW 70 (1958), 48-59. 호르트의 논문에 대해서는 장석정도 그의 논문에서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논문에 걸쳐 소개한 바가 있다. 장석정, "첫째 재앙 재고(출 7:14-25)", 「신학사상」 128집 (2005년 봄), 7; 장석정, "넷째 재앙(출 8: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 (2010년 1월), 5-6; 장석정, "다섯째 재앙(출 9:1-7) 재고", 「신학사상」 150집 (2010년 가을), 8, 14; 장석정, "일곱째 재앙(출 9:22-35)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집 (2012년 7월), 17; 장석정, "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36.

이집트, 특히 나일 삼각주의 기후 내지는 지질학적 변화는 고대 이집트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지질학, 미생물학, 기후학 등의 자료와 전통적인 역사비평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열 가지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구약학 내에서의 이제까지의 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후,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타학문에서 열 가지 재앙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세 부분(첫째-셋째 재앙, 다섯째-여섯째 재앙, 일곱째-열째 재앙)으로 나누어 다루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열 가지 재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문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 2.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구약학적 분석들

구약학에서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구약신학적인 분석으로 재앙을 이집트 신들에 대해 징벌을 내리는 야훼의 구원 행동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열 가지 재앙을 분석하였지만, 그 중 가장 최근의 논문은 블루멘탈(Fred Blumenthal)에 의해 발표되었다.<sup>2</sup> 블루멘탈은 재앙 이야기를 이집트의 다신교와 이스라엘의 일신교 사이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재앙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었으며,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동물의 형상을 한 신들은 물론, 이들의 위에 있으면서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라의 빛을 소멸시키는 역

---

2 Fred Blumenthal, "The Ten Plagues: Debunking Egyptian Polytheism", *Jewish Bible Quarterly* 40 (2012), 255-258.

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sup>3</sup> 이집트의 신들이 대개는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가 다신론 사회였음도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을 이집트의 신들과 연결시켜, 이를 이집트의 다신교와 히브리인들의 일신교 간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고대 이집트는 다신론이 지배하던 사회였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른 신들보다 중요시되던 신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 전승의 시대적 배경인 신왕국 시대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신은 숫양의 머리를 한 아문-레였다. 또한 이 시대에 파라오를 상징했던 호루스라는 신은 매의 머리로 등장한다. 그 외에도 신왕국 시대 당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신들은 암소(하토르), 자칼(아누비스), 따오기(토티) 같은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만약 열 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한다면, 왜 숫양, 매, 암소, 자칼, 따오기와 같은 동물 대신, 개구리, 메뚜기와 같은 생물만 나타나는 것일까? 재앙 이야기 중 이러한 신들과 연관이 된 그 어떤 동물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앙 이야기를 이집트의 다신교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sup>4</sup>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표된 프리드만(Ira Friedman)의 논문에서 저자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고양이 형상을 한 세크메트라는 여신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sup>5</sup> 세크메트는 전쟁과 파괴의 여신으로, 출애굽기의 재앙 전체는 바로 이 파괴의 여신을 파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세크메트를 중요시했던 파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였던 아멘

3 윗글, 257.

4 이에 대해서는 장석정의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장석정, 윗글, 35.

5 Ira Friedman, “‘And Upon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The Egyptian Deity in the Ten Plagues”, *Tradition* 48 (2015), 8-18.

호텝 3세(기원전 1390-1352년경)가 그 당사자인데, 아멘호텝 3세가 어느 정도로 세크메트를 숭배했었는지는 그의 생전에 만들어진 600개가 넘는 세크메트 신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sup>6</sup> 그런데 아멘호텝 3세가 이처럼 세크메트를 떠받든 것은 이 여신이 치유의 힘과 행운을 가져다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파괴의 여신이었던 세크메트를 동시에 치유와 행운의 여신으로 여겼다는 것인데, 이는 프리드만이 묘사하는 세크메트 여신의 속성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세크메트가 프리드만이 주장한 대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전쟁과 파괴의 여신으로만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세크메트는 아멘호텝 3세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했던 신이었고, 아멘호텝 3세 시대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장 숭배했던 신은 숫양의 형상을 한 아문신이었던다는 점에서<sup>7</sup> 재앙 이야기를 이집트의 대표신과 야훼 사이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프리드만의 분석대로 재앙이 세크메트 여신에 대한 것이라면 이 여신이 그나마 가장 숭앙받았던 아멘호텝 3세 시대인 기원전 14세기 전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이야기의 배경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프리드만은 그의 논문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출애굽 재앙이 세크메트를 파괴하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언어적, 특히 히브리어에 대한 분석과 구약신학적 해석을 통한 개념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장석정이 출애굽 재앙에 대하여 발표한 다수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sup>8</sup> 첫째 재앙으로부터 열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재

6 Nicolas Grimal, *A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Blackwell, 1992), 224, 295.

7 아멘호텝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문이 흠족해한다”라는 뜻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8 장석정, “혹암의 재앙 (출 10:21-29): 재앙의 실체에 관하여”, 『신학논단』 26 (1999년 2월), 367-378; 장석정, “열 가지 재앙 再考”, 『인문학연구』 6 (2003년 2월), 211-234; 장석정, “첫째 재앙 재고(출 7:14-25)”, 『신학사상』 128집 (2005년 봄), 35-58; 장석정,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집

양마다 한 편씩 논문으로 발표하며 상세히 분석한 장석정의 논문들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의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 촉발된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장석정의 논문들에서는 탈군요나단(TPsJ), 이븐 에즈라(Ibn Ezra)를 비롯한 랍비의 주석(rabbinic exegesis), 요세푸스(Josephus),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등과 같은 고대 문헌들이 인용되어 있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고대 및 중세 시대의 해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문서비평적 방법론으로,<sup>9</sup> 이 방법론에서는 재앙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 특히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편집 단계를 파헤친다. 대개의 주석서와 학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열 가지 재앙을 분석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열 가지 재앙이 3-3-3-1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해석이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학설이다.<sup>10</sup> 이에 의하면 열 가지 재앙은 첫째—셋째 재앙(강으로부터 발생한 재앙), 넷째—여섯째 재앙(육지에서 발생한 재앙), 일곱째—아홉째 재앙(하늘로부터 발생한 재앙), 열째 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구조에서 세

(2005년 4월), 9-31; 장석정, “개구리 재앙(출 8:1-15)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집 (2005년 7월), 71-96; 장석정, “넋째 재앙(출 8: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 (2010년 1월), 5-26; 장석정, “다섯째 재앙(출 9:1-7) 재고”, 『신학사상』 150집 (2010년 가을), 7-36; 장석정, “여섯째 재앙(출 9:8-1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년 1월), 55-74; 장석정,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6-32; 장석정, “아홉째 재앙(출 10:21-29) 이해”, 『신학사상』 157집 (2012년), 9-36; 장석정, “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35-57; 장석정, “일곱째 재앙(출 9:22-35)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집 (2012년 7월), 5-26; 장석정, “마지막 재앙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집 (2012년 10월), 53-73; 장석정, “열 가지 재앙에 나타난 생명과 생태계”, *Canon & Culture* 6 (2012년 10월), 79-108.

9 출애굽기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으로,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주석서로 재앙 이야기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문서비평적 방법론으로 상세한 분석을 한 책으로는 도즈만의 저서를 들 수 있다. Thomas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EC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9), 176-234.

10 윗글, 189-206; Jonathan Grossm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609.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P에 의한 후대의 첨가이고, 그 외의 재앙은 대체적으로 J 혹은 JE로 이해되고 있다.<sup>11</sup>

넷째, 문서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을 아우르는 역사비평적 방법론으로 여기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대두되어 왔다. 예를 들어, 노트(Martin Noth)는 재앙 이야기를 오랜 구전 전승을 거쳐 J에 의해 문서로 작성된 후, P에 의해 편집되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보며,<sup>12</sup> 반 세터스(John Van Seters)는 재앙 이야기가 J와 P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본문의 구조로 미루어볼 때, 이는 J에 의해 최종화된 예술적 문학 작품이라고 보는가 하면,<sup>13</sup> 차일즈(Brevard Childs)는 동일한 이야기가 J, E, P의 세 편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sup>14</sup> 그러나 재앙 이야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학설 중 어느 하나의 학설도 대표적인 학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3. 고대 이집트의 환경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구약학에서의 논의는 주로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열 가지 재앙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구약학보다는 타학문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이 연구들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이므로 논점과 관점 및 주장들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열 가지 재

---

11 Thomas B. Dozeman, *율골*, 189-193.

12 M. Noth, *Exodu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70-71.

13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4), 78-79.

14 B.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4), 131.

양이 이집트의 자연 환경 및 어떤 특정한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첫째—넷째 재앙, 다섯째—여섯째 재앙, 일곱째—열째 재앙의 세 범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되는 내용을 통해 밝혀지므로, 먼저 첫째 범주에 속하는 첫째—넷째 재앙에 대하여 타학문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첫째—넷째 재앙 (나일강, 개구리, 곤충)

앞서 언급한 호르트의 논문에서는 이미 말한 바대로 열 가지 재앙을 지질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호르트는 출애굽기의 재앙 중 특히 첫째 재앙인 나일강 재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식물성 플랑크톤 중 편모충류(flagellate)에 속하는 유글레나 상기니아(*Euglenia sanguinea*)와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아리스(*Haematococcus pluvialis*)라고 불리는 붉은색 플랑크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서이고,<sup>15</sup> 둘째는 나일강 상류의 퇴적물인 미사(微砂, silt)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모래보다 작은 입자의 모래 중, 붉은색 미사가 여름철인 6-9월에 발생하는 나일강의 범람 때 하류인 나일 삼각주까지 흘러가서 쌓임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호르트의 논문은 정작 구약학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 의학 분야에 속하는 미생물학, 병리학, 전염병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면서, 새로운 학설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들에서는 나일강을 붉게 만든 것은 편모충류 플랑크톤의 급격한 증식이라는 점에서는 호르트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만, 호르트가 유글레나 상기니아와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아리

15 Hort, 윗글 (1957), 94-95.

스를 나일강 재앙의 주범으로 지적한 반면, 여타의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플랑크톤을 재앙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병리학자인 쇤탈(R. Schoental)은 와편모충류(dinoflagellate)에 의해 나일강이 핏빛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sup>16</sup> 그런가 하면 전염병학자인 마르(J. S. Marr)와 맬로이(C. D. Malloy)는 나일강의 색이 변한 원인을 와편모충류의 일종인 남세균(cyanobacteria)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sup>17</sup> 이제까지 열거한 플랑크톤들은 모두 붉은 빛을 띠는데, 세 학자 모두 첫째 재앙을 일으킨 것은 붉은색 플랑크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플랑크톤의 종류에 있어서는 각각의 학자들마다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마다 플랑크톤의 종류가 상이한 것은 지역과 적조 현상의 원인에 따라 플랑크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일강 적조 현상의 원인을 앞서 언급한 학자들은 저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곧 다시 언급된다.

실제로 나일강이 붉게 변한 예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집트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13세기경의 문헌인 이푸웨르 파피루스(Ipuwer Papyrus)로, 이 문헌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구절이 나온다.<sup>18</sup> 이처럼 강물의 색이 핏빛같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 지역의 바다와 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를 적조 현상이라고 부른다. 물이 녹색이 되는 녹조 현상이 있는가 하면, 붉은 빛을 띠는 적조 현상도 있는 것인데, 물의 색이 변하는 것은 종류마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플랑크톤 중 특정한 색을 지닌 플랑크톤의 급격한 증가로

16 R. Schoental, “Mycotoxins and the Bible”,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28 (1984), 117-120.

17 J. S. Marr/C. D. Malloy, “An Epidemiological Analysis of the Ten Plagues of Egypt”, *Caduceus* 12 (1996), 7-24.

18 James B. Pritchard (ed.), “The Admonitions of Ipu-wer”,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441.

인해서이다. 예를 들어 녹조 현상은 녹색 플랑크톤인 녹조류의 증가가 원인이고, 적조 현상은 붉은색을 띠는 플랑크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sup>20</sup>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sup>21</sup>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출 7:20b-21a)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다에는 약 5000종이 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한다. 식물성 플랑크톤 중 붉은색 플랑크톤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적조 현상의 원인은 수온의 상승 혹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플랑크톤은 공통적으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의 구절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로 인해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아도, 적조 현상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남해에서 발생한다. 이는 남해에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플랑크톤으로 와편모충류의 일종인 코클로디니움 폴리크리코이데스(Cochlodinium polykrikoides)의 증식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20도 중반대이기 때문이다. 보통 코클로디니움이라고 불리는 이 플랑크톤이 양식업과 수산업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다.

이처럼 적조 현상은 수온의 상승 혹은 기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이지만, 첫째 재앙인 나일강 적조 현상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첫째, 여름철 나일강의 범람,<sup>19</sup> 둘째, 에게해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의 화산 분화로 인해 이집트 나일 삼각주에 밀어닥친

19 Greta Hort, *유타* (1957), 93-94.

쓰나미,<sup>20</sup> 셋째, 바다의 수온을 상승시키는, 엘니뇨-남방진동(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sup>21</sup>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 현상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주도적인 학설은 없는 상태이다.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건, 일단 적조 현상이 생기면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게 되고, 개구리와 같이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는 물고기의 사체가 부패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를 피해 육지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첫째 재앙인 나일강의 적조는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첫째 재앙이 둘째 재앙을 초래하듯이,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일부 곤충의 급격한 증가라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보통 파리, 모기 등과 같은 곤충은 하천이나 강물에 알을 낳는데, 이 알들은 물고기나 개구리와 같은 생물들의 먹이이기도 하다.<sup>22</sup> 그런데 이를 잡아먹을 생물들이 없어지니, 물속에 있던 수많은 곤충의 알들이 그대로 부화하게 되고, 이는 곤충의 숫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곤충에 의해 초래되는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셋째 재앙(‘이 재앙’)과 넷째 재앙(‘파리 재앙’)에 나오는 곤충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אִי(킨님)과 ‘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אַרְבֵּעַ(아랍)은 모두 출애굽 재앙과 관련하여서만

20 Barbara J. Sivertsen, *The Parting of the Sea: How Volcanoes, Earthquakes, and Plagues Shaped the Exodus 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23-34. 지중해의 크레타 섬 북쪽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은 기원전 17세기 혹은 기원전 16세기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정립된 학설이 없다. 미노스 화산 분화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에 속하며, 그 강도와 규모로 인해 700km 이상 떨어진 나일 삼각주에 쓰나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기후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 N. Joel Ehrenkrantz/Deborah A. Sampson, *윳글*, 31-42.

22 실제로 모기의 수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연못이나 하천에 모기 알을 잡아 먹는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고,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등장하는 단어로,<sup>23</sup> 정확한 뜻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맥상 곤충을 가리키는 듯하므로 ‘이’와 ‘파리’로 번역되었을 따름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은 땅의 티끌이 다 이(אֲרָבִי, 하킨남)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출 8:17)

셋째 재앙을 묘사한 위의 구절에서 우리말에서는 킨님을 “이”라고 번역함에 따라 마지막 부분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부분은 אֲרָבִי אֲרָבִי אֲרָבִי אֲרָבִי로 되어 있다. “오르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며,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으니’”가 본래의 뜻에 더 근접한 표현이 된다.<sup>24</sup> 킨님은 모기나 파리처럼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는 곤충이라면 그 어느 것이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그런데 ‘킨님’의 뜻에 대하여 호르트와 에렌크란츠(N. Joel Ehrenkranz) 및 샴슨(Deborah A. Sampson) 같은 학자들은 이를 모기라고 주장한다.<sup>26</sup> 모기는 물속에 알을 낳을 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흔한 전염병이었던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곤충이기 때문이다.<sup>27</sup> 즉, ‘킨님’이 모기라면, 첫째와 둘째 재앙으로 인해 모기 알을 잡아

23 킨님은 출 8:16, 17, 18; 시 105:31에만 등장하고, 아랍은 출 8:21, 22, 24, 29, 31; 시 78:45; 105:31에만 나온다. 이 구절들은 모두 출애굽 당시의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4 히브리어로 동일한 표현이 다음 절인 18절(히브리어로는 14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말에서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로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킨님 재앙에서만 볼 수 있으며, 킨님 재앙에 이어지는 아랍 재앙도 킨님과 마찬가지로 곤충 재앙에 속하나 아랍 재앙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는다”는 표현이 없다.

25 이에 대해서는 장석정(2005)이 이미 그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장석정,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집 (2005년 4월), 12.

26 Greta Hort, 윗글 (1957), 86, 98-99; N. Joel Ehrenkranz/Deborah A. Sampson, “Origin of the Old Testament Plagues: Explications and Implications”, *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81 (2008), 33-38.

27 미생물학자인 팀 샌들에 의하면 결핵, 말라리아를 비롯하여 기생충인 주혈흡충에 의해 발병하는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이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흔한 사망 요인이었다. 결핵과 말라리아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었다는 것은 관련 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혈흡충증의 경우는 현대에까지 이르러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으로 이집트 의학계에서는 주혈

먹을 생물들이 없어지므로, 숫자가 증가한 모기들이 동물들에게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면서 다섯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열 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가설에 대한 입증은 위해서는 편리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낱님의 정확한 뜻은 현재까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 파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아랍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 파리가 하천에 알을 낳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을 성가시게 하는 곤충인 것은 맞지만, 아랍이라는 히브리어는 파리보다는 “무리, 떼”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즉, 넷째 재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떼를 지어다니는 곤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곤충 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28</sup>

이제까지 다른 첫째-넷째 재앙에 관해 타학문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한다면 처음 네 가지의 재앙은 모두 나일강의 적조 현상이 원인이 되어 연쇄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 이는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곤충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지, 성서학적인 측면에서는 낱님과 아

흡충증에 대한 학술 모임이 있을 정도이다. Tim Sandle, “Pharaohs and Mummies: Diseases of Ancient Egypt and Modern Approaches”,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 Preventive Medicine* 1:4 (2013), e110. doi: 10.4172/2329-8731.1000e110.

28 이로 인해 Grossman같은 학자는 파리 재앙을 곤충떼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Jonathan Grossm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588-610. 구약성경에는 ‘파리’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아랍이고 다른 하나는 제불(צבוב)이라는 단어로, 제불은 전도서 10장 1절과 이사야 7장 18절에만 등장한다. 제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도 아랍처럼 희박하긴 하지만, 제불이 등장하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의 문맥상 제불을 파리로 번역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듯하다. 파리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제불이라는 단어가 파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랍은 파리가 아닌 다른 뜻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역시 아랍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참고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제불은 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롭의 뜻이 여전히 모호하므로, 현 수준의 단계에서는 첫째와 둘째 재앙의 뒤에 곤충 재앙인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이 위치하게 된 것은 첫째-넷째 재앙이 원인과 결과라는 순서에 의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자에 의해 순서가 정해졌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출애굽 재앙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시편 78편 43-52절과 105편 26-36절의 재앙 순서를 출애굽기의 재앙 순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세 본문에서 재앙의 순서는 저마다 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의 순서가 편집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것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원칙에 의해 배열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 2) 다섯째—여섯째 재앙 (가축 돌림병, 종기)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의 공통점은 질병 재앙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질병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 두 재앙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다섯째 재앙에서 질병은 “돌림병(גִּדְוָה, 데베르)으로(출 9:3), 여섯째 재앙에서는 “종기(פִּגְמוֹת, 세힌)”로(출 9:9, 10, 11) 표현된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출 9:3)

출애굽 관련 본문에는 시대착오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열 가지 재앙 이야기에서도 발견되는데, 그중 하나가 위의 구절에 나오는 낙타이다. 낙타가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동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신왕국 시대(기원전 16세기 중반 - 기원전 11세기 중반)보다 몇 세기 후인 기원전 8세기 이후가 된다. 또한 가나안 지역에서도 낙타가

가축으로 길러진 것은 기원전 9세기에 들어서이다.<sup>29</sup> 그런데 다섯째 재앙의 내용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9장 3절은 문서비평에 의하면 기원전 10세기경에 쓰여진 J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원전 9세기 이후에 가축으로 길러진 낙타라는 단어가 J라고 간주되는 문서에 등장한다는 것은 열 가지 재앙의 형성 과정이 문서비평에서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J에 속하는 출애굽기 9장 3절이 후대에 P에 의해서 편집되면서 이 과정에서 낙타라는 동물이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된다. 출애굽기 9장 3절이라는 한 구절에서 시기적으로 J에서 P에 이르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원전 8-7세기경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D에서 이집트의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הַלֵּי, 홀리)을 네게서 멀리 하시 너희가 이는 ‘애굽의 악질(הַרְעִים הַמְצֹרִים מִמִּדְּוַי כָּל־מִדְּבֵה מִצְרַיִם 하라임)’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신 7:15)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הַרְעִים הַמְצֹרִים מִמִּדְּוַי כָּל־מִדְּבֵה מִצְרַיִם, 콜마드베 미츠라임)’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신 28:60)

신명기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나 위의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명기에서는 중 유독 이집트와 관련된 구절에서만 이 질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신명기 7장 15절과 28장 60절에서 공통적으

29 Lidar Sapir-Hen/Erez Ben-Yosef,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mels to the Southern Levant: Evidence from the Aravah Valley", *Tel Aviv* 40 (2013), 277-285.

로 나오는 ‘콜-마드베 미츠라임’의 경우, 이 표현에서 ‘질병’을 의미하는 ‘마드베’는 구약성서 중 이 두 구절에서만 등장하며, 이 단어에 반드시 뒤따라 오는 것이 ‘애굽’을 의미하는 ‘미츠라임’이다. 구약성서에서 ‘질병’을 뜻하는 말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는 신명기 7장 15절에 나오는 חֲלוּ(홀리)이다. 그런데 질병 중에서도 ‘애굽’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때는 정확하게 무슨 질병을 가리키는지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마드베’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צִחָשׁ, 세힌)와 치질(עֲפָל, 오펠)과 괴혈병(דִּמְחֻרִים, 트호림)과 피부병(בִּרְיָ, 가랍)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 받지 못할 것이며 (신 28:27)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27절에는 이집트에 만연하였던 질병이라고 신명기 기자가 이해하였던 병명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 괴혈병,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트호림과 가랍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가랍이라는 말 이후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חֲלוּ(헤레스)라는 질병이 하나 더 등장하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되었다. 이제까지 뜻을 알 수 없었던 오펠이라는 병은 예방의학자인 노리(Philip Norrie)의 연구에 의하면 야토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sup>30</sup> 이 병은 곤충이나 동물에게 물렸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또한 신명기의 같은 구절과 여섯째 재앙에 나오는 종기(세힌)는 구약

30 Philip Norrie, *A History of Disease in Ancient Times: More Lethal than Wa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91.

31 야토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펠은 신명기의 이 구절 외에도 삼상 5:6, 9, 12; 6:4, 5에 등장하는데, 오펠은 예외 없이 항상 트호림과 함께 등장한다. 사무엘상의 해당 구절은 법계를 탈취한 블레셋인들에게 발생한 질병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오펠 뒤에는 트호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펠은 “독한”으로, 트호림을 “종기”로 번역하고 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치질(오펠)과 괴혈병(트호림)으로 나오는 번역과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번역의 통일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신명기에

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로, 박테리아에 의해 생기는 종기는 특히 곤충에 물려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통하여 박테리아가 더욱 쉽게 번식함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박테리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것이므로, 종기는 곤충에 물렸을 때 생기기 쉬운 질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1) 신명기에 나오는 질병에 대한 용어들은 주로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집트는 질환이 많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신명기 7장 15절과 28장 60절에 나오는 ‘콜-마드베 미츠라임’에서 ‘마드베’는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오는 질병들을 포함한 이집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들을 통틀어서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신명기 28장 27절에 등장하는 애굽의 질병 중 그나마 뜻이 알려진 세헌과 야토병인 오펠은 모두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오는 나머지 세 질병(트호림, 가랍, 헤레스) 역시 비슷한 질병일 가능성이 클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기(세헌)가 곤충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인 것으로 여겨졌다면 여섯째 재앙인 종기 재앙은 곤충 재앙인 셋째—넷째 재앙과 원인-결과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론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구약성서에서 출애굽 재앙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세 본문(출애굽기, 시 78편,

---

서 치질이라고 번역된 오펠의 경우,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오펠로 인해 고 통당하는 블레셋인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치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시 105편) 중 종기 재앙이 등장하는 것은 오직 출애굽기뿐으로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섯째 재앙인 종기 재앙이 P에 의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앞서 신명기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 만연하였다고 여겨진 질병들 가운데서 유독 곤충이 매개체라고 고대인들이 여겼을 종기(세헌)가 P에 의해 재앙의 하나로 첨가된 이유는 곤충 재앙인 셋째-넷째 재앙과의 연결성을 위해서라는 추측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성이 있다면, 즉 출애굽기에 있어서 재앙의 순서가 일련의 원인과 결과라는 원칙하에 정해진 것이라면, 여섯째 재앙인 종기 재앙만 셋째-넷째 재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의 경우도 곤충 재앙인 셋째-넷째 재앙과 연결이 된다. 가축 돌림병의 주요 매개체는 곤충들, 특히 파리, 모기, 진드기, 이, 빈대가 되기 때문이다.<sup>32</sup>

이제까지의 해석을 종합하여 첫째-여섯째 재앙의 순서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재앙인 나일강의 적조 현상은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개구리 재앙은 셋째와 넷째 재앙인 곤충 재앙으로 이어지며, 곤충 재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곤충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한 가축 돌림병(다섯째 재앙)과 종기 재앙(여섯째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중 처음 여섯 재앙은 무작위적인 순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sup>33</sup>

32 고대 이집트에서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가 가장 흔한 전염병이었지만, 그 외에도 빈대, 이, 진드기, 딱파리(blackfly), 샌드플라이(sandfly) 등과 같은 곤충들도 질병을 옮기는데, 이 중 딱파리와 샌드플라이만 하천에 알을 낳는 곤충에 해당한다.

33 첫째-여섯째 재앙이 일련의 연쇄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에렌크란츠와 샘슨이 이미 주장한 바 있다. Joel N. Ehrenkranz/Deborah A. Sampson, 윗글, 34-35.

### 3) 일곱째—열째 재앙 (우박/폭풍, 메뚜기, 흑암, 장자)

첫째—여섯째 재앙이 원인과 결과라는 원칙에 의해 P에 의해 현재의 순서대로 편집된 결과라면, 일곱째—열째 재앙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칙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재앙인 우박과 뒤이어지는 여덟째 메뚜기의 재앙 이후, 흑암으로 이어지는 아홉째 재앙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순서로 등장하는지를 본문에 대한 분석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비평적 방법으로 답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나일강 적조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학설들 중 산토리니 화산 분화설과 엘니뇨-남방진동 학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화산 폭발 혹은 엘니뇨-남방진동 현상으로 인해 질병 재앙 이후 우박—메뚜기—흑암 재앙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들의 분석을 검토해 보면 화산 분화나 엘니뇨-남방진동에 의해 우박, 메뚜기, 흑암과 같은 현상이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sup>13</sup>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sup>14</sup>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 <sup>19</sup>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니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출 10:13-14, 19)

예를 들어, 위의 구절은 메뚜기 재앙 중 풍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돌연히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박, 폭풍을 동반하는 엘니뇨-남방진동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또한 산토리니 화산 분화와 같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도 쓰나미와 함께 우박과 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수증하기가 어려운 듯하다. 그 이유는 이들 학자들이 구약학의 여러 방법론, 특히 문서비평이나 편집비평적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열 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순서로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때로는 논리적 비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 재앙 전체가 화산 분화 혹은 엘니뇨-남방진동에 의해 단기간에 차례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째—여섯째 재앙의 근본 원인인 나일강 재앙이 나일강의 적조 현상이라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곱째—아홉째 재앙인 우박—메뚜기—흑암도 산토리니 화산 분화나 엘니뇨-남방진동 이외의 자연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듯하며, 이러한 점에서 기후학자인 자키(Ashraf Zaki)의 분석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그에 의하면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는 겨울철에 간헐적으로 우박이 내리는 시기이다.<sup>35</sup> 실제로 2021년 11월 천둥을 동반한 우박으로 이집트에 인명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우박으로 인해 학교들이 휴교해야 했음이 보도된 적이 있다.<sup>36</sup>

34 시버즌을 비롯하여 산토리니 화산 분화를 열 가지 재앙의 원인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집트의 카르낙에서 발견된 비문으로 아모세 1세 시대 당시의 폭풍을 동반한 이상 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산토리니 화산 분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모세 1세는 히소스를 축출한 파라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히 시버즌은 출애굽을 아모세 1세 당시의 히소스 축출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산토리니 화산 분화를 열 가지 재앙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 타당성이 많은 학설이기는 하지만, 산토리니 화산 분화가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 학자들이 수긍할 만한 설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에서 시버즌의 학설은 여전히 가설로 남아 있다. 산토리니 화산 분화는 미노스 화산 분화 혹은 테라 화산 분화라고도 불린다. Karen Polinger Foster et al., “Texts, Storms, and the Thera Erup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5 (1996), 1-14; Robert K. Ritner/Nadine Moeller, “The Ahmose ‘Tempest Stela’, Thera and Comparative Chronolog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73 (2014), 1-19; Barbara J. Sivertsen, *윳글*, 1-9.

35 Ashraf Zaki/Atef Swelam, *The Climatology of Nile Delta, Egypt* (Amman, Jordan: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2017), 22.

36 <https://edition.cnn.com/2021/11/15/middleeast/scorpions-egypt-storms-intl/index.html>; <https://english.alaraby.co.uk/news/stormy-weather-prompts-egypt-close-some-classes-ports>

그런가 하면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떼의 습격은 나일 삼각주에서 때때로 늦겨울에서 초봄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37</sup>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뉴스 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나일 삼각주를 비롯하여 이집트에 발생하는 메뚜기 떼의 습격은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이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메뚜기 떼 습격은 2004년 11월에 있었다.<sup>38</sup> 2013년에는 유월절을 불과 몇 주 앞둔 3월초인 초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메뚜기떼의 습격이 보도된 적도 있다.<sup>39</sup>

또한 늦겨울과 초봄에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으로 인해 대낮인데도 컴컴해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몇몇 학자들은 아홉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40</sup> 이집트 사람들이 하마씬이라고 부르는 이 모래 폭풍은 대개는 초봄인 유월절 무렵에 발생하며, 한 번 불어닥칠 때마다 약 7-8시간 동안 지속된다. 3일 동안 계속된 것으로 나오는 출애굽기의 본문보다는 기간이 짧지만(출 10:22),<sup>41</sup> 그래도 몇 시간 지속되는 것이다. 이 모래 폭풍이 50을 뜻하는 하마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봄철 약 50일 동안이 하마씬 계절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에 이집트에 닥친 최악의 모래 폭풍은

37 Barbara J. Sivertsen, *읽글*, 41.

38 "Egyptian Farmers Fearful as Locust Threat Looms," *The New Humanitarian*,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13/02/21/egyptian-farmers-fearful-locust-threat-looms>

39 <https://www.nydailynews.com/news/world/locusts-swarm-egypt-israel-passover-article-1.1281267>

40 Greta Hort, *읽글* (1957), 84-103; J. S. Marr/C. D. Malloy, *읽글*, 7-24; H. M. D. Hoyte, "The Plagues of Egypt: What Killed the Animals and the Firstborn?",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59 (1993), 706-708.

41 스테커트에 의하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된 것은 P의 사상이 반영된 편집의 결과이다. Jeffrey Stackert, "Why Does the Plague of Darkness Last for Three Days? Source Attribution and Literary Motif in Exodus 10:21-23, 27", *VT* 61 (2011), 657-676. 또한 3이라는 숫자가 P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Robert B. Coote/David Robert Ord,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1991), 42.

1997년 3월 5일에 발생하였다.<sup>42</sup>

이집트 기후의 이러한 특성은 일곱째—아홉째 재앙인 우박—메뚜기—흑암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가 첫째—여섯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원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우박—메뚜기—흑암으로 이어지는 일곱째—아홉째 재앙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겨울에서 초봄에 걸쳐 이집트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sup>31</sup>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sup>32</sup>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 9:31-32)

이 구절에 의하면 우박이 내린 시기는 보리 이삭이 나오는 때였으니 초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에서 아홉째에 이르는 재앙은 이집트에서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위의 분석을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위의 구절 중에 나오는 보리 이삭이 나오는 무렵은 아빕월이다. 열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은 아빕월에 지켜지는 유월절과 직결되므로, 앞서 나오는 일곱째—아홉째 재앙과 시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장자 재앙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

---

42 "Egypt - Worst Sandstorm for 30 Years", AP Archive, <http://www.aparchive.com/metadata/youtube/5083b3f0399e72a90b65f7ddc5c6a80c>.

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장자 재앙이 초봄인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앞의 일곱째—아홉째 재앙이 이집트의 자연 환경상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지하는 것만으로도 본 논문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리라고 본다.

#### 4. 맺는말

이제까지 열 가지 재앙에 대한 타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를 문서비평적 방법론과 연결시켜 재앙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에서 넷째 재앙은 여름철 나일강의 범람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자연 현상이요,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은 재앙 이야기의 구조상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숫자가 증가한 곤충에 의해 전파된 질병 재앙이고, 일곱째에서 아홉째에 걸친 재앙은 겨울에서 초봄에 이르는 시기에 이집트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현상이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은 유월절과 연관지어지면서 시간적으로 아홉째 재앙에 이어지도록 순서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는 이집트 특유의 자연 현상에 더하여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질병과 관련한 이집트에 대한 당시의 시각과 이해의 복합물로 탄생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열 가지 재앙이 처음부터 열 가지로 구전 전승을 통해 내려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시편 78편과 105편에는 일곱 혹은 여덟 가지로 나오는 재앙의 수가 출애굽기에서는 열 가지로 확장된 것이고, 이는 10이라는 숫자가 P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43</sup> 예를 들자면,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은 모두 곤충 재앙으로 재앙의 성격이 같으며, 마찬가지로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도 질병 재앙으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래는 하나의 곤충 재앙과 하나의 질병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재앙 이야기가 P에 의해 분리가 되면서 열 가지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그러나 P의 이러한 편집 활동은 단일 편집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점차 형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 (1) 재앙의 수를 열 가지로 확정하기까지의 다단계에 걸친 편집 활동
- (2) 재앙의 순서를 여름철—겨울/초봄—장자의 순서로 확정하기까지 편집 활동
- (3) 현재와 같은 3-3-3-1의 구조로 보이게끔 언어적, 문학적 요소 가미가 된 다단계 편집 활동

순전히 추론적 가설인 위의 순서는 시편 78편과 105편에 나오는 재앙 이야기에 대한 본문과의 비교를 통해 추측해 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적어도 열 가지 재앙 이야기가 J 혹은 JE 후에 P의 단일 편집으로 최종화된 것이 아니라, P에 의해 여러 차례 이루어진 편집의 결과 현재와 같은 최종화된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드 보(Roland de Vaux)는 재앙 이야기 구조의 치밀함과 정교함으로 인해 문서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의 그 어떤 비평으로도 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Robert B. Coote/David Robert Ord, *유타*, 41-45; Richard Elliott Friedman, *Who Wrote the Bible?* (New York: Summit Books, 1987), 176-181.

44 시비튼에 의하면 곤충 재앙인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은 같은 재앙의 반복이며, 마찬가지로 질병 재앙인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도 같은 재앙의 반복으로 이러한 반복은 편집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Barbara J. Sivertsen, *유타*, 36.

고 단정 짓는다.<sup>45</sup> 출애굽기에 나오는 현재 형태의 재앙 이야기는 P에 의한 복합적인 편집의 산물로 앞으로 더 넓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장석정, “흑암의 재앙 (출 10:21-29): 재앙의 실체에 관하여”, 「신학논단」 26 (1999년 2월), 367-378.
- \_\_\_\_\_, “열 가지 재앙 再考”, 「인문학연구」 6 (2003년 2월), 211-234.
- \_\_\_\_\_, “첫째 재앙 재고(출 7:14-25)”, 「신학사상」 128집 (2005년 봄), 35-58.
- \_\_\_\_\_, “이 재앙(출 8:16-19)의 새로운 이해”, 「구약논단」 17집 (2005년 4월), 9-31.
- \_\_\_\_\_, “개구리 재앙(출 8:1-15)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집 (2005년 7월), 71-96.
- \_\_\_\_\_, “넷째 재앙(출 8:20-3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집 (2010년 1월), 5-26.
- \_\_\_\_\_, “다섯째 재앙(출 9:1-7) 재고”, 「신학사상」 150집 (2010년 가을), 7-36.
- \_\_\_\_\_, “여섯째 재앙(출 9:8-12)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3집 (2011년 1월), 55-74.
- \_\_\_\_\_,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 (2011년 6월), 6-32.
- \_\_\_\_\_, “아홉째 재앙(출 10:21-29) 이해”, 「신학사상」 157집 (2012년), 9-36.
- \_\_\_\_\_, “메뚜기 재앙(출 10:3-20) 이해”,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35-57.
- \_\_\_\_\_, “일곱째 재앙(출 9:22-35)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집 (2012년 7월), 5-26.
- \_\_\_\_\_, “마지막 재앙 재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집 (2012년 10월), 53-73.
- \_\_\_\_\_, “열 가지 재앙에 나타난 생명과 생태계”, *Canon & Culture* 6 (2012년 10월), 79-108.
- Blumenthal, Fred, “The Ten Plagues: Debunking Egyptian Polytheism”, *Jewish Bible Quarterly* 40 (2012), 255-258.

45 Roland de Vaux,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363.

- Childs, B.,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4).
- Coote, Robert B./Ord, David Robert,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1991).
- De Vaux, R.,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 Dozeman, Thomas B., *Commentary on Exodus* (ECC: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9).
- “Egypt — Worst Sandstorm for 30 Years”, *AP Archive*, <http://www.aparchive.com/metadata/youtube/5083b3f0399e72a90b65f7ddc5c6a80c>.
- “Egyptian Farmers Fearful as Locust Threat Looms”, *The New Humanitarian*, Last Modified February 21, 2013, Accessed June 30, 2022,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2013/02/21/egyptian-farmers-fearful-locust-threat-looms>.
- Ehrenkranz, N. Joel/Sampson, Deborah A., “Origin of the Old Testament Plagues: Explications and Implications”, *Yale Journal of Biology and Medicine* 81 (2008), 31-42.
- Foster, Karen Polinger et al., “Texts, Storms, and the Thera Eruption”,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55 (1996), 1-14.
- Friedman, Ira, “‘And Upon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The Egyptian Deity in the Ten Plagues”, *Tradition* 48 (2015), 8-18.
- Friedman, Richard Elliott, *Who Wrote the Bible?* (New York: Summit Books, 1987).
- Grimal, Nicolas, *A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Blackwell Books, 1992).
- Grossman, Jonath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T* 64 (2014), 588-610.
- Hort, Greta, “The Plagues of Egypt II”, *ZAW* 70 (1958), 48-59.
- \_\_\_\_\_,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 Hoyte, H. M. Duncan, “The Plagues of Egypt: What Killed the Animals and the Firstborn?”,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59 (1993), 706-708.

- Marr, J. S./Malloy, C. D., “An Epidemiological Analysis of the Ten Plagues of Egypt”, *Caduceus* 12 (1996), 7-24.
- Norrie, Philip, *A History of Disease in Ancient Times: More Lethal than Wa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 Noth, M., *Exodus: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 Pritchard, James B.(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sup>rd</sup>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itner, Robert K./Moeller, Nadine, “The Ahmose ‘Tempest Stela’, Thera and Comparative Chronology”,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73 (2014), 1-19.
- Sandle, Tim “Pharaohs and Mummies: Diseases of Ancient Egypt and Modern Approaches”,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 Preventive Medicine* 1:4 (2013), e110. doi: 10.4172/2329-8731.1000e110.
- Sapir-Hen, Lidar/Ben-Yosef, Erez,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mels to the Southern Levant: Evidence from the Arava Valley”, *Tel Aviv* 40 (2013), 277-285.
- Schoental, R., “Mycotoxins and the Bible”,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28 (1984), 117-120.
- Sivertsen, Barbara J., *The Parting of the Sea: How Volcanoes, Earthquakes, and Plagues Shaped the Exodus 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Stackert, Jeffrey, “Why Does the Plague of Darkness Last for Three Days? Source Ascription and Literary Motif in Exodus 10:21-23, 27”, *VT* 61 (2011), 657-676.
- Van Seters, J., *The Life of Moses: 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4).
- Zaki, Ashraf/Swelam, Atef, *The Climatology of Nile Delta, Egypt* (Amman, Jordan: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2017).

검색어

애굽 재앙

적조

하마썩

시편 78편

시편 105편

## An Analysis on the Ten Plagues of Egypt

Young-Hye Kim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es of other academic fields on the ten plagues, and attempts to understand the sequence of the plagues by employ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It presents that the first four plagues are a series of natural phenomena caused by the flooding of the Nile in the summer, whereas the fifth and sixth plagues are disease plagues spread by insects whose numbers drastically increased due to the flooding of the Nile. As for the seventh to ninth plagues, the paper views it as climatic phenomena that occur intermittently in Egypt from winter to early spring. Finally, the last plague, which is related to the Passover through the plague of the firstborn, is placed in its current location to be chronologically linked to the ninth plague.

www.kci.go.kr

Through this analysis, the plague narrative of Exodus is interpreted as a product of understandings on Egypt of the time with regard to diseases, exemplified in Deuteronomy, in addition to natural phenomena unique to Egypt.

It is evident that the number of plagues was not ten during the oral transition period. The present form of the text is the result of multiple redactional activities, particularly by P. It is evidenced by the plague stories in Psalms 78 and 105, which record only seven or eight plagues. Thus, the number of plagues was expanded to ten in Exodus by P, who regarded it as a significant number. In doing so, the insect plague was expanded into the plagues of *kinnim* and of *arob*, whereas the disease plague into the plagues of livestock pestilence and of boil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resent form of the ten plagues in Exodus manifests vestiges of P's editing activities carried out by multiple hands in the courses of a long period of time, rather than a single activity by a single hand.

## Keywords

Plagues in Egypt

Red Tide

Khamaseen

Ps 78

Ps 105

- 투고일: 2022년 7월 19일
- 심사일: 2022년 8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24일

[www.kci.go.kr](http://www.kci.go.kr)